

민속 현장에서의 동경 : 황해도 무속의 경우

박 원 모(한국문화재보호재단)

시미즈야스지(나라현카시아라고고학연구소)

1. 머리말

일본열도의 야요이(弥生) 시대로부터 고분(古墳) 시대에 걸친 유적에서 3,000장을 족히 넘는 대량의 동경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량의 숫자로부터 보면 야요이 시대로부터 고분시대에 걸쳐서 일본열도에서는 거울을 특히 중시했던 사회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지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는 위(魏)의 황제가 히미코(卑弥呼)가 요구하여 동경 100장을 하사한 기록도 보인다. 여기에 더해서 3가지 신물의 하나로 큰 거울이 황실의 상징으로서 취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신토(神道)에서도 거울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종교와 관련해서 거울에 접할 기회도 많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학자는 거울을 계속해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왔다.

이에 대해서,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로부터 삼국 시대에 걸친 고분으로부터 출토된 동경은 낙랑군의 지역을 제외하면 극단적으로 적다. 분묘에 거울을 부장하지 않은 것과 그 시대의 사회에서 거울이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상상의례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의 세계에서는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지역에서 그 유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경향이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인류학적인 연구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지금도 거울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많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화인류학자는 한반도의 무격이 어떻게 거울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리이료쥬(鳥居龍藏)와 아키바다카시(秋葉隆)의 보고가 유명하다.

‘거울은 명신(明神)의 신체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빛나는 것과 사물을 조영(照映)하는 까닭에 신비한 주력을 가진 것으로 여기고, 방울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세계 흔들거나 또는 몸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겼다. 그 형태는 크고 작은 종류가 있지만, 개중에는 한쪽 면이 돌출하고 뒷면에 칠성 모양 등을 표시한 것도 있다.’ (以上 鳥居龍藏 1976『朝鮮の巫覡』『鳥居龍藏全集』朝日新聞社)

‘신경(神鏡)에는 전술한 것처럼 이것을 수개 결합하여 울쇄(鳴金)이라고 하여 방울과 함께 묶어서 무무(巫舞)에서 사용하는 것과 신당 내에 봉안하는 것이 있다. … (중략) … (신경은) 특히 명도(明圖)라고 부르는 지방이 많이 있고, 볼록한 둥근 청동거울 뒷면에 일월칠성 등의 소박한 모양을 새기거나, 또는 일월칠성 등의 문자를 새긴 것도 있다. … (중략) … 신자는 이것을 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평안북도 광산(郭山)에서는 3년에 한번씩 행하는 안택을 비는 큰 굿을 할 때 대명도(大明圖)라는 신경을 안치하며, 삼명도라 하는 세 그릇의 공물, 즉 놋그릇에 조를 수북이 담고 종이꽃·실·순가락 등을 얹은 것을 바치고서 명도아지(明圖阿只=鏡姬)의 신위를 제사지내는데 이 대명도는 명도아지의 얼굴이라 한다. … (이하

생략) ...’ (以上 秋葉隆 1950『朝鮮巫俗の現地研究』養徳社)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현대 한반도의 샤만이 어떻게 거울을 다루고, 거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조사는 상기 양자가 서술하고 있는 거울 중에서도 명신(明神)의 신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에 한정하였다. 혼드는 거울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 기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은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인 황해도의 무녀로 한국전쟁 때에 월남해 와서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을 중심한 서해안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금화 만신이 소장하고 있는 거울이다.

2. 무속의례와 신경(神鏡)

한반도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는 ‘굿’은, ‘무당’이라고 하는 의례직능자에 의한 주술적인 민간의례이다. 북한의 최남단 서쪽에 위치한 황해도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계절에 따라 가정의 축복을 바라는 ‘철무리 굿’, 선주가 사공들과 함께 해상안전과 풍어를 비는 ‘배연신굿’,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동 굿’, 무당의 입무의례(入巫儀禮)인 ‘내림굿’,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오가굿’ 등 여러 가지 무속의례가 행해졌다.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황해도의 무속의례는 현지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있고,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월남한 황해도 지역 출신의 무당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 특히 황해도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인천 부근으로 일부는 서울 등에도 진출해 있다.

황해도 지역의 무속의례에서는 ‘명두’라고 하는 신경(神鏡)이 사용된다. 명두는 의례를 하는 동안 신체(神體)로서 가설된 제단에 봉안된다. 제단에는 공물과 함께 신들의 신체로서 ‘맞이’ 또는 ‘환’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신도가 걸려 있고, 의례를 할 때에 무당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복과 무구가 장식되어 있다. 명두는 무당의 신으로 죽은 신어머니나 아버지를 상징하는 ‘성수맞이’라고 하는 무신도 위에 나란히 걸어 놓는데, 명두를 얼굴로 하고서 아기의 저고리를 걸쳐 놓는다. 그 중에서도 큰 것은 걸지 않고 제단 위에 세워 놓는다.

명두는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만드는데, 거울의 면이 약간 둥글게 튀어나온 것이 오래된 형태라고 한다. 뒷면에는 해와 달, 칠성 등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일월성신과 같은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도 있다. 김금화씨는 명두의 종류에는 ‘일월명두’, ‘칠성명두’, ‘만성수명두’, ‘대신명두’, ‘부인명두’, ‘서낭명두’ 등이 있다고 한다. ‘일월명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월신의 영매라고 하는데 명두의 뒷면에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칠성명두’는 수명을 주관하는 칠성신의 신체로서 뒷면에 북두칠성과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만성수명두’는 무당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뒤쪽에 십장생 또는 해, 달, 별 등이 그려져 있다. ‘대신명두’는 무당의 직성신을 모시는 명두로 뒷면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부인명두’는 명두 뒷면에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서낭명두’는 주발 뚜껑 크기의 것으로 뒷면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다. 제작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모양의 내용이 상이하다.

‘일월대명두’는 특히 의례의 처음 단계에서 신들을 제단에 맞이해 올 때에 신들의 영매로서 사용된다. 일월성신을 맞이하는 ‘일월성신맞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소나무 가지에 도포를 입히고 얼굴 부분에 ‘일월대

명두'를 건 '일월대'라고 하는 일월신의 장대가 사용된다. 일월성신은 무당의 수호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무당은 '일월성신맞이'에서 '일월대'를 가지고서 무가를 부르다던가 선회하는 춤을 춘다던가 한다. 신이 내려오면 '일월대'가 흔들려 신의 현현을 표시한다. 신이 내린 '일월대'는 의례가 끝날 때까지 제단에 봉안된다.

김금화 무당이 의례에서 사용하는 거울 중에는 명두와는 별도로 '화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 '화경'은 명두보다 작는데 똑같이 낫쇠로 만들며 손잡이가 있다. 뒷면에는 복수(福壽)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고 그 양쪽에는 학이 있으며 하단에는 거북이가 그려져 있다. 무속이 전승에 의하면 한국의 건국신화 중에 천손인 환웅이 강림할 때에 거울과 칼을 가지고 방울이 달린 뚝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와서 거울은 공주에게 전해 굿을 할 때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주는 무조(巫祖)인 바리공주를 지칭하는 것 같다. 굿을 할 때에는 화경을 앞으로 해서 '애기씨부채'와 겹쳐서 함께 쌀을 담은 그릇에 꽂아 공물과 같이 제단의 중앙에 놓는다.

3. 이니시에션과 쇠걸립

신과 인간의 사이에 서서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의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신에게 빌어주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당(巫堂)이라고 한다. 황해도지역에서는 무당을 특히 '만신(萬神)'이라고 부른다. 그 호칭과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가무(歌舞)로 의례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닌다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무당은 성무과정(成巫過程)의 특징에 따라서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강신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병(巫病)에 걸려 이니시에션을 하고서 무당이 되는 무격(巫覡)이고, 가무를 동반한 강신의례를 전문으로 한다. 그러나 세습무는 대대로 무당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무를 학습하여 축복의 의례를 전문으로 하는 무격을 말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시내를 동서로 흐르는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강신무 지역으로 남쪽은 세습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황해도 지역의 무당은 고전적인 강신무로 무병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이니시에션을 행해고서 무격이 된다. 무병을 신의 뜻으로 여기고서 무당이 되는 이니시에션을 행하기 전에, '쇠걸립'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다. 쇠걸립이란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을을 다니면서 걸립을 해서 신체가 되는 거울과 방울 등의 무구를 만들기 위한 쇠를 모으는 의례이다. 쇠걸립은 걸립을 통해서 쇠와 쌀을 모아 무당이 되기 위한 이니시에션을 할 경비로 사용하고 동시에 새롭게 신이 내려 무당이 될 사람의 영험을 알려서 의뢰자들에 대한 조직을 확보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당이 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신이 말하는 대로 소리한다. 그러면 그 집의 사람은 놀라면서 낫그릇을 준다던가 또한 옛날에 굿에 사용한 쇠로 만든 것을 넘겨 준다던가 한다.

이번에 조사의 대상으로 한 김금화 만신은 1931년에 황해도 연백(延白)에서 태어나 12세부터 무병을 앓았고 17세에 신어머니인 외조모로부터 무당이 되는 이니시에션을 행하였다. 그 시대에는 기성의 거울이나 방울 등이 없어서 쇠걸립을 해서 새로 만든다던가 신어머니 등의 스승으로부터 받는다던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전쟁 때 월남하면서 그 모든 무구를 잃어버려서 이니시에션을 할 당시의 거울은 신어머니이기도 한 외조모로부터 받은 화경 한 장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외의 거울은 남하해서 만난 스승들에게서 받았던가 새롭게 만들었다던가 한 것이다. 김금화 씨는 수십 명에 달하는 제자를 거느린 큰 무당으로 모시고 있는 신경(神鏡)도 십 수 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중에서 그녀가 중시하고 있는 화경 2장과 명두 4장을 대상으로 했다. 신경은 서울에 있는 그녀의 자택 제단에 봉안되어 있는데 굿하러 다니기 위해 보자기에 싸둔 것도 있고 오래된 것은 강화도에 세운 그녀의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4. 소장 청동경의 실측

· 화경(A)

에도시대의 손잡이가 있는 거울이다. 전체 길이가 24.2cm, 거울의 지름이 14.2cm, 두께가 3mm, 손잡이 부분의 두께가 2mm이다. 거울의 뒤쪽은 오랜 세월 손을 타서 마모되어 문양이 희미하다. 또한 거울의 면을 잘 닦여 있어 영상 효과가 충분하다.

거울 뒷면에는 길조를 표시하는 ‘복수(福壽)’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합쳐서 그린 도안의 문양이 있다. 두 마리의 학이 비상하고 돈주머니, 갓, 도롱이, 방망이, 두루마리, 열쇠 등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植田山城守吉正’라고 하는 명문이 쓰여져 있다.

계재된 단면도는 세부를 실측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측치로부터 복원한 모사도이다. 지름과 손잡이 길이와의 관계, 거울 뒷면의 도안을 보면 에도시대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 화경(B)

이것은 화경(A)가 김금화 만신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제사를 행할 때에 분실의 염려가 있어 모조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 길이가 23.0cm, 거울의 지름이 13.2cm, 바깥 두께가 3mm이다. 손잡이 부분의 두께가 2.5mm이다.

· 명두(A)

북한에서 월남할 때 지참한 명두로 김금화 만신이 소유한 가장 오래된 명두이다. 면의 지름이 31.1cm, 바깥 두께가 2.5mm, 꼭지의 높이가 2.3cm, 꼭지의 길이 3.7cm, 곡률이 4cm이다.

곡률이 크게 불룩한 면이 거울이다. 거울의 면은 잘 닦여 있다. 만형(挽型)으로 형태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고 나서 주물을 하여 꼭지를 내리눌러서 경계를 만들었다.

거울 뒷면에는 지름 5.4cm 정도의 큰 원이 2개 있는데 한쪽 원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를 표현한 모티브가 퇴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문양이 있다. 다른 한쪽의 원은 달을 상징한다고 생각되는데, 원 안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지름 2.8cm 정도의 약간 작은 원이 7개 있어 북두칠성을 형상하고 있다. 그 외에 거울의 뒷면에는 흩어져 있는 작은 원이 우주의 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 명두(B)

면의 지름이 24.4cm, 외연의 두께가 1.5cm, 곡률이 2.4cm이다.

곡률이 크게 볼록한 면이 거울이다. 거울의 면은 잘 닦여 있다. 만형(挽型)으로 형태를 만든 흔적이 꼭지의 주변에 잘 나타나 있다. 꼭지는 철사 상태의 것을 쫓았다.

거울 뒷면에는 원의 일부가 양각되어 있는데, 원 둘레의 1/4정도이다. 별 모양이 일곱 개 있어 북두칠성을 형상하고 있다. '일월대명두(日月大明斗)'라고 하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거울의 뒷면에는 단조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 명두(C)

면의 지름이 22cm, 외연의 두께가 2.8mm, 곡률이 2.6cm이다.

곡률이 크게 볼록한 면이 거울이다. 거울의 면은 잘 닦여 있다. 만형(挽型)으로 형태를 만든 흔적이 꼭지의 주변에 잘 나타나 있다. 꼭지는 철사 상태의 것을 쫓았다.

거울의 뒷면은 큰 원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별 모양이 일곱 개 있어 북두칠성을 형상하고 있다. 거울의 뒷면에는 단조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 명두(D)

면의 지름이 24.1cm, 외연의 두께가 2mm, 곡률이 3.1cm이다.

곡률이 크게 볼록한 면이 거울이다. 거울의 면은 잘 닦여 있다. 만형(挽型)으로 형태를 만든 흔적이 꼭지의 주변에 잘 나타나 있다. 꼭지는 철사 상태의 것을 쫓았다.

거울의 뒷면에는 2개의 큰 원형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별 모양이 일곱 개 있어 북두칠성을 형상하고 있다. 거울의 뒷면에는 단조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5. 맺음말

역사학은 과거에 존재한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그것에 대해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은 오늘날의 민중 또는 무문자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고학은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의 도움을 받아 그 시대상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고 문화인류학과 민속학도 역사학을 통해서 그 근거와 기원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민속학의 현장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무속의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울을 조사함으로써 고고학의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대의 거울의 사용법을 유추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물론 민속에서의 현재의 거울의 사용법이 고대에도 그대로 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상상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무속의례에서의 거울의 사용은 신체로서 제단에 봉납하는 경우와 악기로서 의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사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으로 한 황해도의 무속의례에서는 신경(神鏡)을 얼굴로 해서 아기의 저고리를 입혀서 사람의 형태를 한 신체를 무신도와 함께 제단에 건다. 그 중에서도 일월대명신의 신경은 소나무 가지에 도포를 입힌 어른 크기의 일월대를 만들어 신의 영매로서 사용한다. 신경(神鏡)은 언제, 누구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동의 무구와 함께 이니시에션 때에 쇠걸립을 해서 만든다던가 스승에게서 받는다던가 하는 것이다.

김금화 만신의 신경(神鏡)에는 명두와 화경 2종류의 것이 있는데, 보통 신경(神鏡)이라고 함은 명두를 말한다. 조사된 명두는 주로 해와 달에 칠성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또한 조사된 화경 중 하나는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제로 그 연유는 모르지만 일본으로부터 도래한 것이 그녀의 신어머니인 외조모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졌다. 다른 무당의 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금후에는 거울의 사용법의 다른 하나인 제주도의 무속의례에서 기도할 때에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울쇄(鳴金)’에 대해서 조사를 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속의 세계에서 거울의 2가지 사용법과 고고학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되는 고대의 거울의 사용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화경의 명문 해석에는 鶴見泰壽 선생님의 도움을 얻었다.

《참고문헌》

- 도리이류쥬(鳥居龍藏), 1976, 「朝鮮の巫覡」『鳥居龍藏全集』朝日新聞社
아키바다카시(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養徳社
김금화, 1995, 『김금화무가집－거르나파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문음사
김금화, 1995,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푸른숲
박원모, 1998, 「韓國・漢海道の万寿大宅クッ」『全郷芸會報』全郷芸
박원모, 2003, 「金錦花－西海岸船迎神祭・大同祭芸能保有者－」『韓國文化』集英社

이 논문의 집필은 1장(시미즈야스지·박원모), 2·3·5장(박원모), 4장(시미즈야스지)가 분담하였다(한글 번역 박원모).



사진 1. 화경(A) 길이: 24.2cm



사진 2. 화경(B) 길이: 2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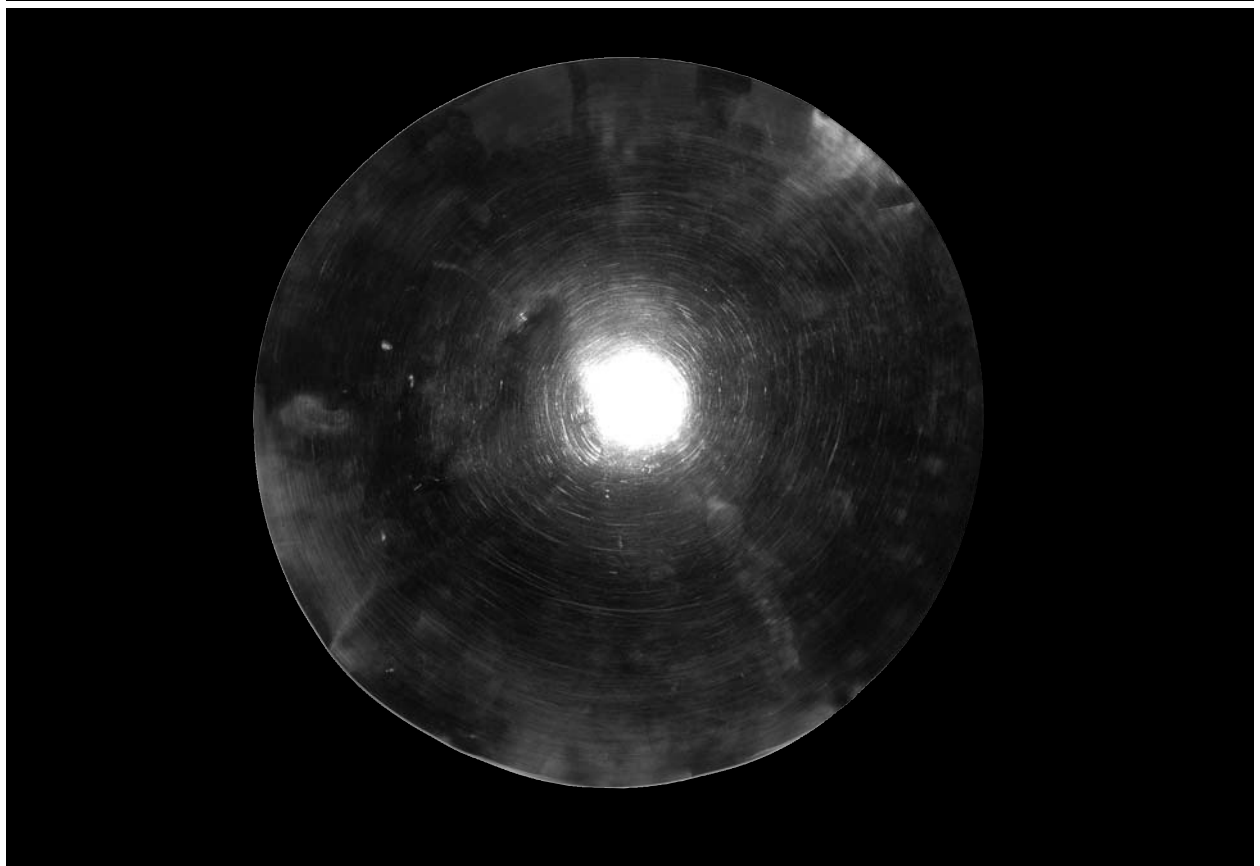


사진 3. 명두(A) 지름: 3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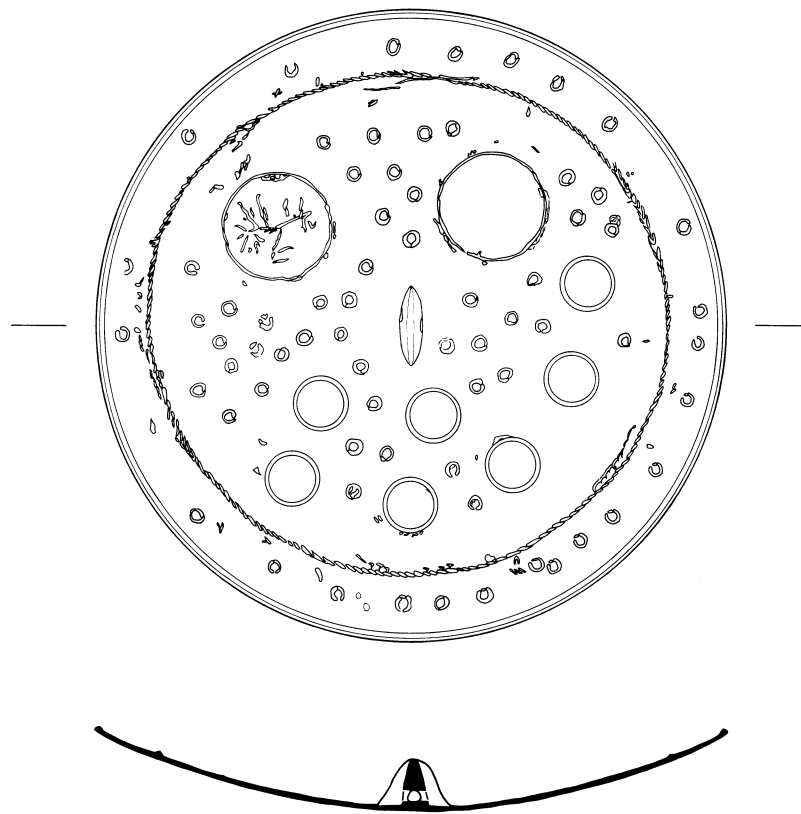


사진 4. 명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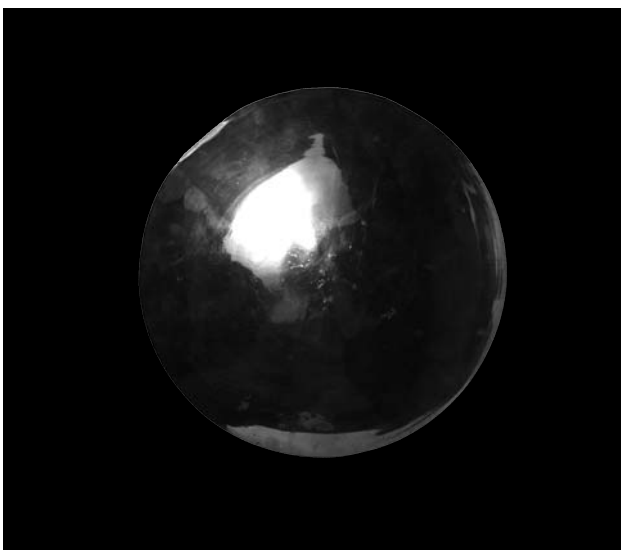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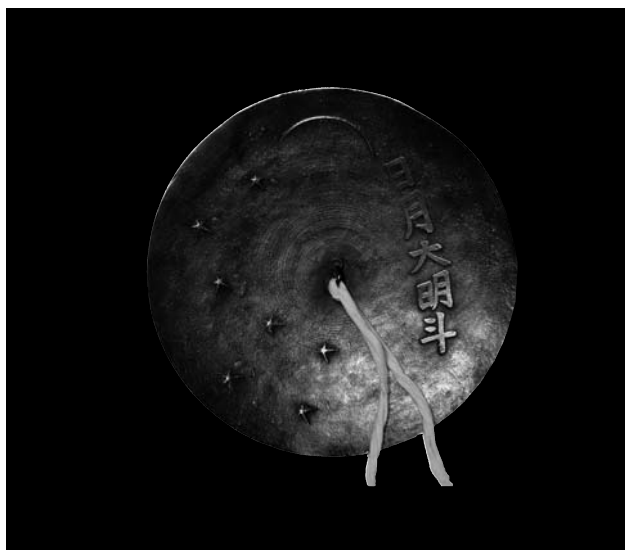


사진 5. 명두(B) 지름 24.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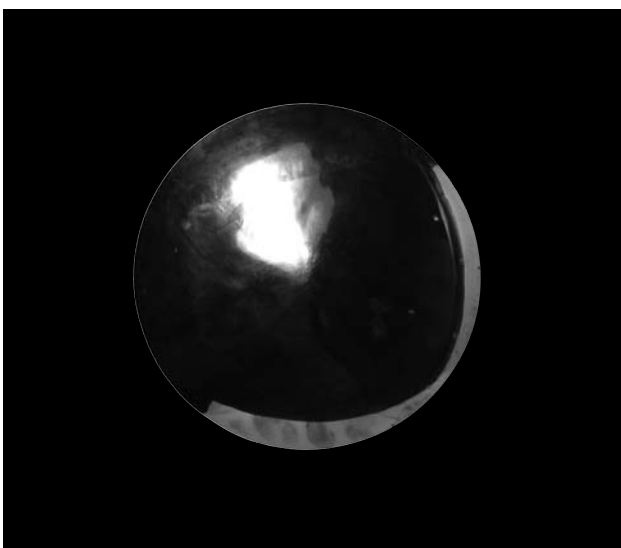


사진 6. 명두(C) 지름: 2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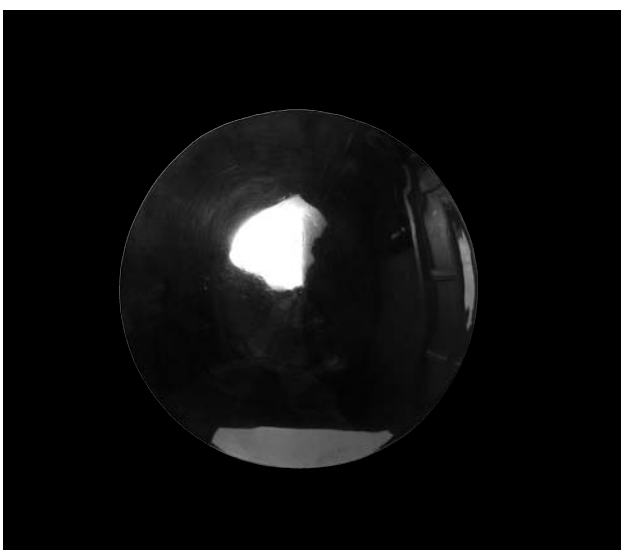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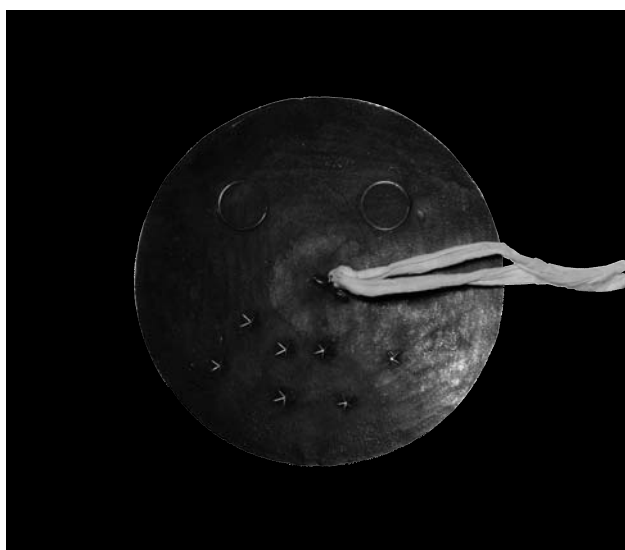


사진 7. 명두(D) 지름: 24.1cm



사진 8. 쌀그릇에 부채와 함께 꽂혀 있는 화경



사진 9. 제단에 걸려있는 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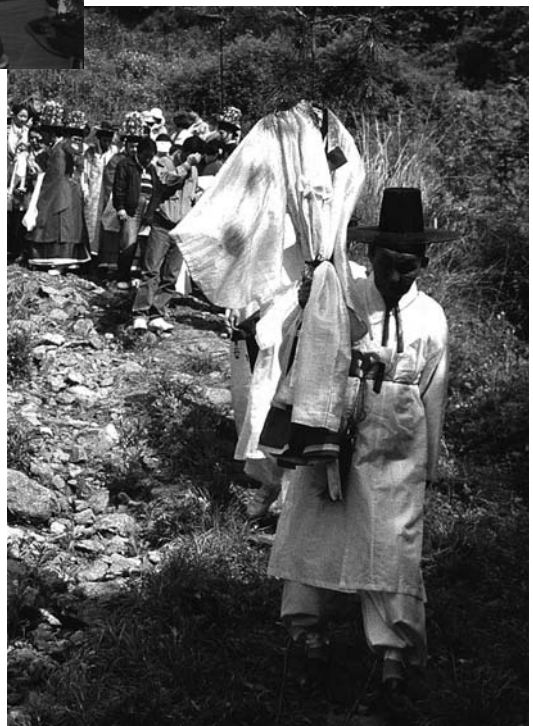


사진 10. 일월대를 든 무속인들

民俗の中の神鏡

－韓国 of 黄海道巫俗の場合－

朴原模
清水康二

1 はじめに

日本列島の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にかけての遺跡からは、3000枚を優に超える大量の銅鏡が出土している。出土量の多さからすれば、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にかけて、日本列島では鏡を特に重視した社会が存在したことがわかる。また、魏志倭人伝には魏の皇帝が「汝好物」として「銅鏡百枚」を卑弥呼に下賜した記述も見られる。それに加えて、「三種の神器」の一つとして「八咫鏡」が皇室のレガリア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現代の神道でも鏡は重要な役割を演じ続けており、日本人が宗教に関連して鏡に接する機会も多い。したがって、日本の歴史学者は鏡を重要な研究対象として扱い続けてきた。

これに対して、韓半島の青銅器時代から三国時代にかけての遺跡から出土する銅鏡は楽浪郡の地域を除けば極端に少ない。墳墓に鏡が副葬されなかったことと、その時代の社会で鏡が重要視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とは分け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が、少なくとも葬送儀礼の場では特別に重要視されてはいなかったことは容易に想像されよう。

考古学の世界では遺物を大量に出土する地域では、その遺物を対象とする研究者が多くなるのは当然の傾向であり、このような傾向は文化人類学的な研究者にも見ることができる。今も鏡について特別な感情を持っている日本人は多いからである。韓国併合後の日本の文化人類学者は、韓半島の巫覡がどのように鏡を使用する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強い関心を持った。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鳥居龍蔵と秋葉隆の報告が著名である。

「鏡は明神の神體として使用するだけでなく、その光り輝くことと、物を照映する處から神秘的な呪力あるものとなし、鈴と同じく祈禱時に打ち振り又は身の守りとさえる。その形状、大小種々あるが、中には一面突出し裏面に七星模様等を表はしたものもある。」（以上 鳥居龍蔵 1976「朝鮮の巫覡」『鳥居龍蔵全集』朝日新聞社）

「神鏡には前述の如く之を數個結び合わせて鳴金となし、又鈴と共に結び合わせて巫舞に用うるものと神堂の内に奉安してあるものとがある。…（中略）…（神鏡は）特に明圖と稱せられる地方が多く、凸面の青銅圓鏡の裏面に日月七星等の素朴なる模様を刻し、又日月七星等の文字を刻せるものもある。…（中略）… 信者はこれを以て神の顔と考へてゐる。例えば平安北道郭山では三年に一回づつ行ふ安宅の大巫祭に當つて大明圖と稱する神

鏡を安置し、三明圖と呼ぶ三器の供物即ち鑪器に粟を盛り、紙花・糸・匙等を載せたものを供へて明圖阿只（鏡姫）の神衣を祀るが、この大明圖は明圖阿只の顔であるといはれてゐる。…（以下省略）…」（以上 秋葉隆 1950『朝鮮巫俗の現地研究』養徳社）

このような状況で著者らは現代の韓半島のシャーマンがどのように鏡を扱い、鏡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を知るために共同調査を行うこととした。今回の調査は上記両者が述べている鏡の中でも明神の神体として使用されるものについての報告に限定する。打ち振りの鏡についてはまた次回に報告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そして今回の調査の対象としたのは現在の北朝鮮黄海道地域の巫女で、朝鮮戦争の時に韓国に超南し、ソウルをはじめ仁川を中心に西海岸沿いで活躍している金錦花万神が所蔵している鏡である。

2 巫俗儀礼と神鏡

朝鮮半島のあちこちで行われている「クッ」とは、「巫堂」と呼ばれる儀礼職能者による呪術的な民間儀礼である。北朝鮮の最南端の西側に位置する黄海道地域では、昔から季節によって家庭の祝福を願う「チョルムリクッ」、船主が船頭と共に海上安全と豊漁を祈る「ベヨンシンクッ」、村の安寧や繁栄を祈願する「デドングッ」、巫堂の入巫儀礼である「ネリムクッ」、死んだ人の靈魂を慰める「チノギクッ」など様々な巫俗儀礼が行われた。現在、北朝鮮の共産主義の体制下で黄海道の巫俗儀礼は現地では行われていないが、朝鮮戦争の時に韓国に越南して来た黄海道の地域の出身の巫堂と人々の間で引き続き行われて来た。特に黄海道地域の出身の人々が多数住んでいる地域は仁川付近で一部はソウルなどにも進出している。

黄海道地域の巫俗儀礼では「明斗」という神鏡が使用される。明斗は儀礼の間に神体として仮設される神棚に奉安される。神棚には供え物と共に神々の神体として「マジ」あるいは「ファン」と呼ばれる数々の巫神図が掛けられており、儀礼の時に巫堂が使用する様々な神服や巫具が飾られている。明斗は巫堂の神で亡くなった神の母あるいは父を象徴する「星数マジ」という巫神図の上から並びに掛けられるが、明斗を顔にして子供の着物を着させて置かれる。その中でも大きいものは掛けられなく神棚の上に立てておく。

明斗は一般に青銅で作られるが、鏡面が少し丸く膨らんでいるものが古い形だという。裏面には日や月、七星などが描かれているものもあり、日月七星という文字が書かれているものもある。金錦花氏は明斗の種類には、「日月明斗」、「七星明斗」、「万星数明斗」、「大臣明斗」、「婦人明斗」、「城隍明斗」などがあるという。「日月明斗」は、日と月を象徴する日月神の依り代といわれるが、明斗の裏側に日と月が描かれている。「七星明斗」は、寿命を主管する七星神の神体で裏側に北斗七星と新月が描かれている。「万星数明斗」は、巫堂の神を象徴するもので裏側に十長生または日、月、星などが描かれている。「大臣明斗」、巫堂の直星の神を祀る明斗で裏面には何も描かれていない。「婦人明斗」、明斗の裏側に日と月が描かれている。「城隍明斗」は鉢の蓋ぐらいの大きさで裏面に何も描かれていない。しかし、実際の現場ではこのような原則が守られなく混合して使われている。制作も作る人によってその模

様の内容が異なっている。

「日月大明斗」は特に儀礼の初めの段階で神々を祭堂に迎えて来る時に神の依り代として使われる。日月星辰を迎える「日月星辰マジ」という演目で、松の枝に着物を着させて顔の部分に「日月大明斗」をかけた「日月テ」という日月神の竿が用いられる。日月星辰は巫堂の守護神の中でも一番上の神で、「日月星辰マジ」で巫堂は「日月テ」を持ち、神歌を歌ったり回旋しながら舞を舞ったりする。神が降りてくると「日月テ」が振れて神の顕現を示す。神が降りた「日月テ」は儀礼が終わるまで神棚に奉安される。

金錦花巫堂が儀礼で使用する鏡の中では明斗とは別に「華鏡」という鏡がある。「華鏡」は明斗より小さいが同じく真鍮で作られて柄が付いている。裏面には「福寿」という漢字が書かれており、その両側には鶴があり、下段には亀が描かれている。巫俗の口承によると、韓国の建国神話の中での天孫である桓雄が降臨の時に鏡と刀を持ち鈴が付けられた竿を杖にして降りて来たが、鏡は姫に伝えられて儀礼を行うところに使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こでの姫は巫祖の姫を指すようである。儀礼の時には、華鏡を前にして「エギシブチェ（姫の扇）」と重ねて共に米を入れた器に差され、供物と一緒に神棚の中央に置かれる。

3 イニシエーションと鉄乞い

神と人の間に立ち神々の意を人に伝えながら人々の願いが叶うように神に祈ってあげる人を韓国では一般に巫堂（ムーダン）という。黄海道地域では巫堂のことを特に「万神」と呼んでいる。その呼び方や在り方は地域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が、彼らは歌舞で儀礼を行いながら人々を祝福して廻るということは同じである。

しかし、巫堂は成巫過程の特徴によって大きく「降神巫」と「世襲巫」の二つの類型に分けられる。降神巫は原因を知らない巫病にかかってイニシエーションをして巫堂になる巫覡で、歌舞を伴う神降ろしの儀礼を専門とする。そして、世襲巫は代々巫堂の家柄で生まれて子供の時から歌舞を習って祝福の儀礼を専門とする巫覡のことを言う。地域的にはソウル市内を東西に流れている漢江を中心として北は降神巫の地域で南は世襲巫の地域だと知られている。

黄海道地域の巫堂は典型的な降神巫で、巫病を通じて巫堂になるイニシエーションを行って巫覡になる。巫病を神の意として受け入れて、巫堂になるイニシエーションを行う前に、「鉄乞い」という手順がある。鉄乞いとは、巫堂になろうとする人が村々を廻りながら門付けをして神体になる鏡や鈴などの巫具を作るための鉄を集める儀礼である。鉄乞いは、門付けを通じて鉄と米を集めて巫堂になるためのイニシエーションをする経費として使うと同時に、新しく神にかかって巫堂になる人の霊能力を知らせて依頼者の組織を確保するという意味がある。巫堂になる人は知らない人の家に入って神が話させる通りに語る。そうするとその家の人は驚きながら真鍮の器をあげたりあるいは昔巫儀で使った鉄で作ったものを渡してあげたりする。

今回の調査の対象にした金錦花万神は、1931年に黄海道の延白郡で生まれ、12歳から巫病を病み、17歳に神の母でもある母方の祖母に巫堂になるイニシエーションを行ってもらった。その時代には既製の鏡や鈴などがなかったので鉄乞いをして新しく作ったり、神の母などの師

匠からもらったり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しかし、彼女は朝鮮戦争の時に越南しながらそのほとんどの巫具を無くしてしまって、イニシエーションの時の鏡は神の母でもある母方の祖母からもらった華鏡1枚しか持っていなかった。現在持っているその他の鏡は南下してから出会った師匠らにもらったり、新しく作ったりしたものである。金錦花氏は数十名ほどの弟子を持っている偉い万神であるように、祀っている神鏡も十数枚持っている。今回の調査ではその中で彼女が珍重している華鏡2枚と明斗4枚を対象にする。神鏡はソウルにある彼女の自宅の神棚に奉納されているが、巫儀の旅のために袋に包まれているものもあり、古いものは江華島に立てられた彼女の記念館に安置されている。

4 所蔵青銅鏡の実測

・ファ鏡（A）

江戸時代の柄鏡である。全長24.2cm、鏡径14.2cm、縁厚3mm。柄の部分の厚さは2mmを計る。鏡背は長年の手入れによって摩耗しており文様は朦朧としている。また、鏡面もよく磨かれており、映像効果も十分である。

鏡背文様は吉祥を表す「福寿」字入り宝づくしの図柄である。二羽の鶴が飛翔し、金袋、かくれ笠、かくれ蓑、打出の小槌、宝巻、宝鍵などが鋳出されている。

銘文は「植田山城守吉正」と読むことができる。

掲載した断面図は、細部を実測する時間がなかったため、計測値から復元した模式図である。面径と柄長の関係、鏡背の図柄から見れば江戸時代中期の製作と考えられる。

・ファ鏡（B）

これは、ファ鏡（A）が金錦花万神にとって重要であるため、自宅以外の場所で祭事を行う際に紛失を恐れて模造したものだという。

全長23.0cm、鏡径13.2cm、縁厚3mm。柄の部分の厚さは2.5mmを測る。鏡背文様は二羽の鳥が飛んで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

・明斗（A）

現在の北朝鮮地域から持参した明斗で、金錦花万神が所有する最も古い明斗である。面径31.1cm、縁厚2.5mm、鈕高2.3cm、鈕長3.7cm、面反りは4cmを測る。

面反りが大きい凸面鏡である。鏡面はよく磨かれている。挽き型により成形したと思われるが、その後鋳型に紐を押しつけて界線を作っている。

鏡背文様には2つの直径5.4cmほどの大振りな円があり、片方の円の中には太陽を象徴する三足の鳥を表現するモチーフが退化したと考えられる文様がある。もう一つの円は月を象徴すると考えられるが、円の中には文様は描かれていない。また、直径2.8cmほどのやや小振りな円が七つあり、北斗七星を象っている。その他、鏡背面に無数に散らばって配置される小振りな円は宇宙の星々を表しているのだろうか。

・明斗（B）

面径 24.4 cm、縁厚 1.5 mm、面反りは 2.4 cm を測る。

面反りが大きい凸面鏡である。鏡面はよく磨かれている。挽き型により成形した痕跡が鈕の周辺によく残っている。鈕は針金状のものを埋め込んでいる。

鏡背文様には大振りな円の一部が鋳出されるが、円周およそ 1 / 4 程度である。星形が七つあり、北斗七星を象っている。「日月大明斗」という銘文が鋳出される。鏡背面には鍛造によって成形されたと考えられる敲打痕が見られる。

・明斗（C）

面径 22 cm、縁厚 2.8 mm、面反りは 2.6 cm を測る。

面反りが大きい凸面鏡である。鏡面はよく磨かれている。挽き型により成形した痕跡が鈕の周辺によく残っている。鈕は針金状のものを埋め込んでいる。

鏡背文様は大振りな円文が凸線で鋳出される。星形が七つあり、北斗七星を象っている。鏡背面には鍛造によって成形されたと考えられる敲打痕が見られる。

・明斗（D）

面径 24.1 cm、縁厚 2 mm、面反りは 3.1 cm を測る。

面反りが大きい凸面鏡である。鏡面はよく磨かれている。挽き型により成形した痕跡が鈕の周辺によく残っている。鈕は針金状のものを埋め込んでいる。

鏡背文様には 2 個の大振りな円形文様が鋳出される。星形が七つあり、北斗七星を象っている。鏡背面には鍛造によって成形されたと考えられる敲打痕が見られる。

5 おわりに

歴史学は過去に存在した時代を対象とする学問であり、それに対して民俗学あるいは文化人類学は現代の常民あるいは無文字社会を対象とする。したがって、考古学は民俗学や文化人類学の助力を借りてその時代像を描くことが可能になるし、文化人類学や民俗学も歴史学を通じてその根拠や起源を類推することができる。

今回の調査は、民俗学の現場で現在も行われている韓国の巫俗儀礼で使用されている鏡を調査することによって、考古学の発掘現場で出土する古代の鏡の取り扱い方を類推する手掛かりが得られないかと考えた。もちろん民俗学の世界での現在の鏡の使い方が古代にもそのまま通じるとは言えないが、その状況を想像するための手掛かりを提供することはできるであろう。

韓国の巫俗儀礼での鏡の扱いは、神体として神棚に奉納される場合と、楽器として儀礼で使われる場合があるが、今回の調査は前者に当たるものである。調査対象になる黄海道の巫俗儀礼では、神鏡を顔にして子供の着物を着せて人の形をした神体を巫神図と一緒に神棚に

掛ける。その中でも日月大明神の神鏡は松の枝に着物を着せた大人の大きさの日月竿になって神の依り代として用いられる。神鏡は、いつ、誰でも勝手に作れるものではなく、他の青銅の巫具と共にイニシエーションの時に鉄乞いをして作ってもらったり、師匠から譲り受けたりするものである。

金錦花万神の神鏡には明斗と華鏡の2種類のものがあるが、普通、神鏡という時は明斗のことをいう。調査された明斗は主に日と月に七星が描かれているものであった。また、調査された華鏡の一つは江戸時代に作られた日本製でその縁由は分からないが、日本から渡来したものが彼女の神の母である母方の祖母から彼女に伝えられた。他の巫堂の儀礼では見られないものである。

今後は、鏡の使用法の他の一つである、済州島の巫俗儀礼で祈禱の時に打ち振って音を出す「ウルセ（鳴金）」について調査を行いたいと考えている。そして、民俗の中での鏡の2種の使い方と考古学の発掘調査で出土する古代の鏡の使用法との関係について研究を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華鏡の銘文釈読については、鶴見泰寿の助力を得た。

■参考文献

- 鳥居龍蔵 1976 『朝鮮の巫覡』 『鳥居龍蔵全集』 朝日新聞社
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
金錦花 1995 『金錦花巫歌集－黒い土の万神、白い民の歌－』 文音社
金錦花 1995 『福は分け、恨は解け』 プルンスブ
朴原模 1998 『韓国・黄海道の万寿大宅クッ』 『全郷芸会報』 全郷芸
朴原模 2003 『金錦花－西海岸船迎神祭・大同祭芸能保有者－』 『韓国文化』 集英社この論文の執筆分担は、1章（清水康二・朴原模）、2・3・5章（朴原模）、4章（清水康二）である。